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세상을 울리고 웃긴 光日만평 61년 ▶2
광주·전남 주요대학 1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7
한국축구 브라질월드컵 16강 시나리오 ▶1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31호 1판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음력 11월 7일)

김효석·윤장현 '安 새정치' 위원장에

박호군·이계안 등 4명 선임…창당 본격화
광주·전남 지방선거 민주당과 경쟁 가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김효석 전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계안 전 의원이 8일 임명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장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윤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이사장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지낸 NGO(비정부기구) 활동가다.

박 전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과학자로 인천대 총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계안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사단법인 2.1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 위원장은 인재 영입과 정책개발 등 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위원장 인선에 대해 신당 창당보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푼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윤 이사장 외에도 이 전 의원은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박 전 장관도 인천에서 활동을 해와 인천시장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산하에 소통위원회를 두고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소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안 의원의 공보 담당인 금태섭 변호사는 추진위 대변인을 맡았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신당 창당 시기에 대해 "따로 (창당) 로드맵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복지 생색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여야 "지방재정 국고보조율 높여라" 한 목소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각종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중앙이 복지 강화의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장관들이 보기에는 (예결위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 측면에서 더 공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복지정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악화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책사업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대응책도 함께 추궁했다.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입보전용 추경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우려에 대해 "경기가 회복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법인세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온누리에 평화를"…불밝힌 성탄 트리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8일 밤 이 곳에서 시민과 성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온누리에 평화가 퍼지기를 기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국방 "F-15K 기지 광주 옮기면 이어도 방어 가능"

광주공항 방공식별구역 유탄

"군공항 이전 또 표류하나" 지역민 반발
정부 이어도 포함 새 구역 선포, 15일 발효

정부와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대전의 불똥이 느닷없이 광주공항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어도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려면 군 주력 전투기(F-15K)를 대구에서 광주로 옮기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공군의 이어도 상공 작전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 "대구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대구에 있는 F-15K기지를) 광주 군용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상공 도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대구비행장에 있는 군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출격한다면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30분 정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실제 대구기지에서 이어도 상공까지는 540여㎞로, 우리 공군이 60대를 보유중인 F-15K가 무기 등 복합무장을 갖추고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0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구 기지에서 출발해 작전을 수행한 뒤 광주 군공항(광주~이어도 390여㎞)에 내릴 때를 가정한 것으로, 광주 군공항에는 F-15K를 지원할 시스템이 없어 재출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도심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광주·전남지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지역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안겨준 광주 군 군항의 도심 외곽 이전 계획이 또다시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형 전남대 교수는 "광주, 수원, 대구 등 3개 도시의 군 공항 이전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안보 등을 이유로 대구에 있는 전투기를 광주로 옮기자는 발언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의도를 파악한 뒤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한편,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새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KADIZ 확대 소식을 긴급보도하면서 특히 한중 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4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모집인원 : 00명 (광주반, 여수반)
● 전형방법 : 면접고사 100%
● 원서접수
☞ 일반전형 : 2013.12.02(월) ~12.16(월)
2014년도 최고정책 및 관리자과정생 모집
모집기간 : 2013. 11. 11 ~ 2014. 02. 28
● 문 의 :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지혜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4 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학과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프라임칼리지 | 금융 · 서비스학부(회계금융전공, 서비스경영전공), 첨단 공학부(산업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모집기간 2013. 12. 2(월)~2014. 1. 10(금)
입학상담 1577-2853 [입학오삼]